

해남군, 벼 생산비 절감 기술 보급 경영개선 박차

농가 벼 생산비 절감 도움 일괄 자동 파종기 보급 등

해남군이 쌀 소비 감소와 가격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벼 생산비 절감 기술 보급에 나섰다.

14일 해남군에 따르면 올해 벼 생산비 절감 기술보급 사업으로 '볍씨 파종 농작업 생력화 시범사업'과 '농작업 생력화 모듈형 직진 자동조향장치 기술 시범사업' 등 2개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볍씨 파종 농작업 생력화 시범사업은 볅씨 파종 전 과정에 자동화 기계인 일괄 자동 파종기를 보급해 상토널기부터 볅씨 파종까지 자동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자동화 기계를 이용하면 8-9명의 인력과 7-8시간의 노동시간이 소요되는 파종 전 과정이 노동력은 30%, 노동시간은 50%의 단축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농작업 생력화 모듈형 직진 자동조향장치 시범사업은 GPS 기반 직진 자동조



해남군이 농업인들의 벼 생산비 절감을 위해 볅씨파종 농작업 생력화, 모듈형 직진 자동조향장치 등 2가지 기술 보급을 시행하고 있다. **해남군 제공**

향장치를 트랙터, 이앙기 등에 부착해 자동으로 직진이 가능한 장치를 보급하고 있다.

기존에 보유한 농기계에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어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되고 정밀한 작업이 가능하며 노동 피로도가 줄어들어 농가 만족도가 높다.

해남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 성과를 분석해 확대해 가는 한편 벼 생산비 절감 기술을 발굴·보급해 농가 경영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해남=전연수 기자

간부공직자 청렴 챌린지 영암군, 교육·콘서트 등

영암군(군수 우승희)은 반부패·청렴도 향상 추진계획 하나로 간부공직자 '청렴 챌린지'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청렴 챌린지는 소통과 공감의 청렴 문화를 확산하고 전 직원 청렴실천 의지를 다지는 시간을 뜻한다.

우승희 영암군수를 시작으로 간부공직자들은 청렴에 대한 의지와 마음가짐, 당부 등 메시지를 영상에 담아 직원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영암군은 전 직원 청렴 서약을 시작으로 청렴편지 발송, 간부공직자 청렴교육, 청렴 콘서트 등 청렴도 제고에 나선다.

'청렴은 군민과의 약속이자 실천입니다'라는 청렴 메시지를 발표한 우승희 영암군수는 "공직자들의 청렴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공직사회와 지역사회 전반에 청렴 문화를 확산하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영암=이병영 기자

섬지역 환경 정비 활동 추진 완도군, 20인 이하 거주 대상

완도군이 20인 이하 주민이 거주하는 섬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2023 작은 섬, 큰 기쁨' 사업을 추진한다.

14일 완도군에 따르면 '작은 섬, 큰 기쁨' 사업은 정책에서 소외된 섬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섬별로 1000만원을 지원해 주택 개보수(도배·장판 등)와 가전제품 수리, 마을 환경 정비 등을 시행한다.

완도군에서는 금일 다량도와 노화 장사도 등 4개 섬이 올해 사업 대상지이며 지난 9일 금일 다량도에서 첫 번째 사업을 마쳤다.

금일 다량도는 금일읍에서 개인 선박을 통해 30분을 이동해야 접근이 가능한 곳으로 16호, 20명이 거주하는 섬이다.

군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봉사 단체인 대한적십자사 완도지구협의회와 마을 공동시설의 도배, 장판, 가전(TV·냉장고) 수리 및 교체를 했다. 노화 장사도 등 3개 섬 주민들의 복지 및 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기석 지역개발과장은 "규모 있는 섬 위주의 정책으로 인해 소외됐던 섬 주민들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도서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완도=최경철 기자



무안군, 주민과 함께 도심 텃밭 조성

무안군이 주민들에게 지속 가능한 농업의 이해를 높이고, 공동체 문화 활성화를 위해 '신도시 텃밭 조성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무안군 제공**

영암군 '찾아가는 주민·청년참여예산학교' 운영

영암군(군수 우승희)은 '찾아가는 주민·청년참여예산학교'를 오는 21~23일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방재정 운용과정에 대한 주민 이해를 돕고 주민·청년참여예산제도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영암군은 읍·면 순회 설명회 방식으로 진행해왔던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올해부터 확대했다.

청년참여예산제를 도입해 청년참여위원 공모, 청년참여예산학교 운영 등 지역

청년이 예산 수립에 참여할 시책을 발굴하고 다음 회계년도에 청년예산도 늘릴 계획이다. 교육은 일반 3회, 청년 2회로 총 5회다.

교육은 △주민참여예산제도 이해 △영암군 재정 및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현황 △주민제안사업 발굴 △우수사례 학습 등을 내용으로 참여식 내용으로 진행된다. 이번 학교에서는 시대적 요구인 △군민 안전 예산편성 교육도 추가됐다.

주민참여예산학교는 군민이면 참여할

수 있고 영암군청 홈페이지, 영암군 앱 '영암e랑', 읍·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 중심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관행을 탈피, 주민참여예산위원 전원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했다.

이달 말까지 공모 중인 주민·청년참여예산 제안사업에서는 일회적 행사, 농·배수로 개선 등 단순 반복 사업을 지양하고, 군민 복지 증진과 다수 군민 이용 사업 등을 위주로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영암=이병영 기자

비브리오패혈증 예방 홍보활동 신안군, 예방수칙 준수 당부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지도 병어축제장에서 비브리오패혈증 예방 홍보 활동을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비브리오패혈증은 오염된 어패류를 날 것으로 섭취하거나 상처 난 피부가 바닷물에 접촉했을 때 감염되는 질환이다.

해수 온도가 18도 이상 상승 시 비브리오패혈증 증식이 이뤄져 5-6월부터 환자가 생김 8-9월 가장 많이 발생한다.

감염 시 급성발열·혈압저하·구토·설사·피부 병변 등 증상을 보인다.

간 질환자·알콜중독자·면역저하자·당뇨병 등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은 감염 시 치사율이 50%에 달해 예방수칙 준수가 중요하다.

신안군에서는 매주 해수 및 어패류 취급업소 수족관수를 검사하고 있으며 방문·전화 등을 통해 고위험군 집중 교육 및 관리 시행 중이다.

어패류 조리 시 흐르는 수돗물에 깨끗이 씻기, 해산물을 충분히 익혀먹기, 피부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바닷물 접촉 주의, 사용도 마 및 칼 등 조리도구 열탕 소독, 어패류 취급 시 장갑 착용 등 지켜야 한다.

신안=홍일갑 기자

영암군, 16일부터 코리아 슈퍼바이크 대회

영암군에 위치한 F1국제자동차경주장에서 오는 16-18일 '2023 영암 코리아 슈퍼바이크 페스티벌'이 개최된다.

14일 영암군에 따르면 한국이륜차안전보급협회 주관, 영암군 후원으로 열리는 이번 페스티벌에는 바이크 300여 대, 1000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각축을 벌일

예정이다.

페스티벌은 16-17일 연습 경기인 '트랙 데이', 18일 본경기인 '코리아 트로페오 레이스', 일본출신 프로 레이서 유타오카야 선수 라이딩 교육, 사진 출사, 4개의 이벤트로 구성된다.

3개의 클래스로 나뉜 본경기는 △600

cc 이상 두카티 △600cc 이상 피렐리 △400cc 이상 KTM 대회이다.

두카티는 두카티사의 바이크로 피렐리는 피렐리의 타이어를 장착한 바이크로 별이는 레이싱이다.

경기방식은 국제규칙인 '8시간 내구 레이스'다. 아시아 각 단체에 소속된 선수들이 국적에 상관없이 '최대 4인-1팀'을 이뤄 1인당 30분 이상 주행해야 한다.

영암=이병영 기자

목포시, 전통시장 두 곳 노후전선 정비

목포시가 동부시장, 종합수산물시장 노후전선을 정비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14일 목포시에 따르면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은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 내 개별점포의 분전반, 차단기 및 배선기구 교체, 옥내배선공사 등 노후전선 정비 개선을 통해 화재로부터 안전한 전통

시장 구축하는 사업이다.

시는 중기부에서 지난 3월 실시한 제2차 노후전선정비사업 공모에서 동부시장, 종합수산물시장이 선정되어 국비 2억 5000만원을 확보했다.

선정된 2개 시장은 현재 설계 용역이 진행중이며 7월 공사를 착공해 9월 준공

예정이다. 공사는 2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다.

동부·자유·청호·종합수산물·중앙식료·향동·신중앙시장 등 7개 전통시장에 대해 전기, CCTV, 화장실 등 시설개선을 추진해 쾌적한 쇼핑공간으로 개선하고 있다. 중앙식료시장과 수산물 집산지인 향동시장은 노후화된 지붕을 정비할 예정이다.

목포=정기찬 기자

완도 해상서 죽은 백상아리 발견

완도 해상에서 백상아리가 발견됐다.

14일 완도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3일 소안도 비자리 해안가에서 죽어있는 백상아리가 목격됐다.

백상아리는 길이 1m50cm, 40kg 정도로 추정되며 사체는 전북의 한 대학교에 연구목적으로 보내졌다.

전문가들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수온 상승과 먹이생물 변화 등으로 인해 백상아리 출현이 늘고 있다고 분석했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소안도 인근 해상에서 상어가 발견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상어를 만났을 때에는 고향을 지르거나 작살로 찌르는 자극적인 행동을 자제하고 자리를 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완도=최경철 기자

고소득형 패류 7.4톤 살포 신안군, 수산자원 회복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최근 세계자연유산인 청정 갯벌어장 수산자원을 회복하고 어업인 소득 향상을 위해 지도 선도 지선 등 3개 지선에 고소득형 패류 7.4톤을 살포했다고 14일 밝혔다.

살포한 패류는 서해안 갯벌에서 자연 성장한 3cm 이상 바지락(6.7톤)과 가무락(0.7톤) 2종으로 병성감정 기관의 수산생물 전염병 검사를 마친 검증된 종패다.

패류는 서식지가 각각 다른 만큼 패류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어촌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자연산 종패 서식 유무와 환경적 특성을 고려해 적지를 선정, 살포했다.

신안군 관계자는 "갯벌어장 내 자원량 회복은 물론 어업인(지역주민) 소득에도 많은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오는 10월 중 자은 둔장지선 외 8개 지선에 백합(12톤)을 살포하는 등 지속적인 패류 자원을 조성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안=홍일갑 기자